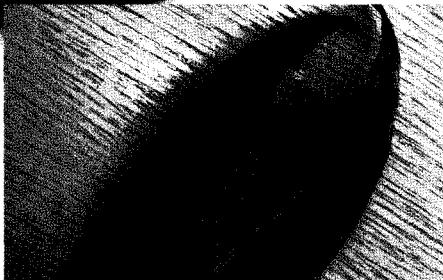


구근류



한경숙_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잎마름병



잎과 꽃에 아주 작은 연한 갈색의 점무늬를 형성하고 병반이 합쳐지면서 적갈색 터두리를 가진 타원형으로 확대된다. 심한 경우에는 잎이 마르는 증상으로 진전된다. 꽃봉오리에도 작은 갈색 점이 생기고 병반 표면에 곰팡이를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 급속히 퍼진다. 식물체가 다습해지지 않도록 환풍에 주의하고 잎마름병 방제약 제로 이프로디온수화제 등 8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습도가 높을 경우 과립훈연제를 이용한 방제도 효과적이다.

역병



지제부 줄기가 암갈색 내지 검은색으로 변하며 급격히 시들어 죽는다. 노지포장에서는 빗물에 튀어 지상부 잎에도 발생하며 물에 데친 것처럼 잎이 검게 변해 죽는 증상을 나타내며 흰색의 균사를 형성한다. 역병은 물에 의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수생성 곰팡이임으로 배수가 불량한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철 비가 오거나 침수될 때 급속히 퍼진다. 역병이 발생한 포장은 즉시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피해부위를 중심으로 전문약제를 선택하여 관주처리 한다.

구근부파병



구근 및 지하부 줄기에 주로 발생한다. 구근표면에 갈색 부정형 병반이 생기며, 시든 줄기의 지제부에는 흰색 내지 분홍색 곰팡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구근에 의해 전염되지만 토양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대표적인 토양전염성 병해이다. 흐르는 물, 농기구나 신발에 묻은 토양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병든 식물체와 구근은 제거하고 정식 전에 반드시 토양이나 구근을 소독한다. 구근은 캡탄수화제와 티오파네이트메틸수화제에 30분간 침지 소독한다.

세균성목썩음병



생육중일 경우 처음에는 지면부의 줄기에 갈색 점무늬가 수침상(水浸狀)으로 나타나며, 차츰 암갈색~흑갈색으로 썩으며 지상부 전체가 말라죽는다. 병든 줄기에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세균액이 분비되고 토양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주로 발생한다. 토양 중에 있던 병원균은 빗물에 의해 잎이나 줄기 표면에 붙어 상처나 기공을 통하여 침입하고 발병하게 된다. 연작하지 않도록 하며 배수가 잘되고 통기성이 좋은 토양을 택하고 무병 건전구근을 사용한다.

뿌리옹애



뿌리옹애는 땅속 지하부의 인경과 뿌리를 가해하는 토양해충으로 저장중인 구근에도 피해를 준다. 고자리파리, 작은뿌리파리 유충과 같이 발생할 때 피해가 크며, 사질토양, 산성토양, 유기질이 많은 토양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식물은 잎이 누렇게 변하고 뽑아보면 인경기부에서 뿌리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제법으로는 건전종구를 선택하고 피리클로포스수화제는 정식전 종구침지처리하며, 디메토에이트유제와 테부펜파리드유제는 발병초 토양관주로 방제한다.

작은뿌리파리 유충



작은뿌리파리 유충은 몸길이 4mm정도로 작고 하얀색의 벌레로 머리는 검은색을 띠며 몸체가 투명하여 소화기관이 세로로 짙은 갈색을 띈다. 상토재배하는 백합에서 최근 큰 피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뜻하고 다습한 재배조건으로 인해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뿌리의 생육이 저하될 경우 근권부로 침입하여 2차적인 피해를 준다. 유충은 저온저장고(4°C)내에서도 생존하므로 저장 전 혹은 정식 전에 소독한다. 노란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작은뿌리파리의 성충을 방제할 수 있다.

